

20년 전 이때쯤, 나는 공주교도소에서 한창 징역을 살고 있었다. 1986년 때 이른 여름더위가 뜨겁던 5월, 인천 주안네거리에서 있었던 '5·3 인천항쟁'의 주범으로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까막소'에 있으면 세상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면회 오는 집사람을 통해 87년 1월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았다.

아, 어떻게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을까? 그 이전에도 슬한 사람들이 고문과 암살로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린 채 바다 속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 그래도 이 사실은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종철의 죽음은 곧바로 정확하게 드러났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그 이전 슬한 사람의 목숨이 민주화의 거름이 되었고 이제 종철이의 죽음으로 민주화의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짜에 한국천주교는 박정희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여기에 비해 한국 불교는 거의 외면한 채 세월을 보냈다. 아니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자 세상보기

서 동 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기술이기는커녕 독재정권이 조정하는 '반공결기대회'에 동참하는 '배신'의 모습을 보였다.

80년대 중반 젊은 불제자들이 나섰다. 민중해방의 새 세상을 만들자고, 그것이 참으로 이 사회를 계를 정토로 만드는 일이라고 외쳤다. 어느덧 이런 외침이 세력화되던 참에 종철이의 죽음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켰다. 아름다운 청년 불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종철이의 49재가 있던 날, 87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실로 한국불교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님들이, 사부대중이 대거 거리

로 나와 국가공권력과 맞서기 시작했다. 승복이 최루탄가투로 뒤덮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냈다. 6월 항쟁은 국제사회에서도 민주화 투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넓은 사회질서를 해체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꺼이 큰바탕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야 한다. 민불련의 기치도 이러하였다. 87년 여름, 한국불교가 마침내 기반과 위선의 낡은 껍질을

벗어버렸다.

나는 6월 항쟁 덕분에 행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석방되었다. 7월 8일 공주교도소를 나오자마자 집사람과 민불련 동지들이 마련한 승합차를 타고 연세대로 갔다. 학교는 시민들로 가득 찼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렬 열사의 영정으로 장엄한 무대에 올라 '가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누구라도 마음껏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안타깝게도 박종철 열사, 이한렬 열사의 바람대로 87년 민주화투쟁이 민중의 해방된 세상으로 이어지는 못했다. 15년째 민주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수탈체제는 여전히다. 남영동 대공본실이 인권보호소로 변모한 정도이지 실제로 보안법은 버젓하게 살아있다.

삶의 질은 더 나빠지는데 국민소득은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의 편중이 더 극심해졌다는 반증이다. 민중의 아픔이 여전히다. 민중불교운동의 당위성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87년 정신'은 어느새 가뭇없어졌다. 94년의 모습도 이런 사라졌다. 다시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들고 거리에 서야한다. 항쟁의 성과를 누린 소수의 정치권 인사를 시비하는 건 할바다. 민주화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한국불교가 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불자의 눈

조계종의 중앙총회는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총회의 구성 정족수는 비구 비구니 스님 81명이다. 남녀 재가신도는 배제된 상황에서 종단의 법률 제개정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그런 가운데 중앙총회는 청정성과 윤리성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중앙총회의원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나 '타락선거'니 하는 꼬리표가 붙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정성을 요구받는 승가사회에서 그런 꼬리표를 달고 '고생'하는 것이다. 종단 내에서도 청정 선거를 위한 각종 제안과 법률적 장치 마련의 시도가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총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준비위가 215명의 승재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는 종단 구성원 수가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준비위의 설문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중앙총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중앙총회 부끄러운 성적표
미래 위한 '거울'로 삼아야**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중앙총회와 의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청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사항'들에 대한 제3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선거의 혼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인정했다. 중앙총회의 청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조계종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측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심축은 중앙총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인 총무원의 행정을 돕고 견제하는가 하면 각종 종단 권익과 발전의 비전을 창출해 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의기관이 종도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말이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승가정신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승가정신이란 바로 요즘 유행하는 '화합과 상생'에 기초한다. 그러나 현실은 계파가 스스럼없이 인정되고 문종의 이해관계가 '거래'의 수단인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성적은 곧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원칙을 벗어나는 데서 부작용을 낳는다. 중앙총회 역시 '선거법'이나 '중앙총회 회의법' 각종 위원회 관련 법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계파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게 실행되면서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연출해 내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준비위의 '중앙총회 성적표'가 중앙총회의 원과 각 종무기관의 소임자 나아가 종단 구성원 모두가 청정한 대의기구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내부의 적

"정견(正見), 곧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체법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응부경전>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의원이 1월 18일 대선시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이 지리멸렬하면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한나라당 자신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얘기지만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나라든, 단체든, 가정이든 집단이라면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인파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적'이란 내부의 분란을 의미한다. 안으로 시비가 넘치면 밖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어느 집단이든 욕심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욕심이 넘치면 정견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자비로운 승가에서조차도 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쫓는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싸우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한 번 둘러보자는 것이다. 내가 속한 집단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부의 '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말이다. 욕심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욕심을 버려야 하고,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면 미연에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역사는 교훈이다. 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명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문화포교 패러다임 견고히 하자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장자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타고 있는 집 안에서 나를 생각을 안 하는 세 아들에게 장자는 이와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너희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던 희유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와서 가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羊車),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 소가 끄는 수레(牛車)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가 좋으니라. 너희는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달라는 대로 너희에게 주마."

이 말을 들은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어,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있을 때부터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러자 장자는 여러 아들들이 무사히 나왔음에 기뻐하며 큰 수레를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불타는 집은 삼계화택(三界火宅), 세 가지 수레는 삼승(三乘)을 의미한다하여 불자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함은 오늘날 사회변화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은 '문화'를 불교계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요즈음 불교계에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흐름에 편승하여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나 산사음악회나 템플스테이, 사찰에서의 문화행사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문화'는 그 자체로 명제이자 패러다임이지 '수단·도구'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화경의 비유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장자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하여 '수레'라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소위 근기에

맞는 방편의 활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레를 곧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화포교하면 의례 문화 예술행사나 문화프로그램을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 문화포교는 곧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교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자비로우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를 헤아려 아는 것, 그것이 곧 문화포교의 시작이요,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이다.



음악회도 좋고, 축제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바라보

무한한 콘텐츠 작은것부터 실용성있게 개발해야

는 수많은 중생들을 아들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사찰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일이 안내는 못할지언정 물은 이곳에서, 화장실은 저곳에서, 잠시 앉았다 가시는 곳은 여기라는 안내문을 사찰 구석구석에 붙여 놓는 마음이 곧 '문화포교'의 시작이다. 값싼 저지된 공짜로 마실 수 있는 핫바투 한 자락이라도 선풍 내놓는 자체가 문화적 영역에서 불교와 사회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불교가 지닌 문화 콘텐츠의 양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소재가 없어 '문화포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에 천착하여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전의 권위적 방식, 일방통행적 방식의 사찰운영이나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설득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불교'의 진정한 소비자, 향유자(享有者)인 신도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배려가 '문화포교'의 시작이자 전부임을 명심하자. 김윤신(속재기획 불무 대표)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입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병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입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병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곁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확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함정

지도자고급과정
● 일주일 :
2007년 1월 25일 (목요일)
2007년 1월 27일 (토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병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 참선공의식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기공,국,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진 스님은 췌장암에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 쪽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종2때부터 전혀 몰도 못 미치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병의 되어 눈에 백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